

## 《外臺秘要》의 中風에 關한 考察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內科學教室 東義大學校 韓醫科大學 內科學教室  
조규선 · 권정남 · 신길조 · 이원철

### I. 緒論

晉唐時代 醫學發展의 특징 중 하나는 方劑學이 두드러지게 발전하여 이전의 여러 名方, 經驗方, 民間方 등을 모은 綜合醫書가 출현한 것이다<sup>1)</sup>. 이러한 綜合醫書중 하나인 《外臺秘要》는 唐代 王燾의 저작으로 東漢에서 唐까지의 많은 方書를 모은 것이다. 《外臺秘要》에는 주로 《諸病源候論》과 《千金要方》에서 인용된 부분이 많고<sup>2)</sup>, 기타 《范氏方》, 《小品方》, 《深師方》, 《崔氏方》, 《張文仲方》, 《許仁則方》, 《古今錄驗方》, 《廣濟方》 등 唐 이전에 완성되었으나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적도 많이 인용되어 있으며, 王燾 자신의 醫論은 거의 없다.

《外臺秘要》의 中風門은 모두 21條의 醫論과 125개의 治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東漢에서 唐까지의 中風에 대한 여러 醫家의 인식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여러 醫家說의 인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王燾의 中風觀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이에 저자는 《外臺秘要》의 中風門을 연구하여 약간의 지견을 얻은바 이를 발표하고자 한다.

### II. 本論

#### 1. 兩晉-隋唐時代의 醫學의 특징

兩晉에서 隋唐에 이르는 시기의 醫學 발전은 疾病의 인식, 새로운 處方 개발, 養生의 연구, 新藥의 발견 등에서 비교적 커다란 진보가 있었고, 특히 方劑學의 발전이 두드러진다<sup>3)</sup>. 春秋戰國時代에서 秦漢時代를 거치면서 많은 임상경험이 누적되었고, 隋唐時期에 이르러 社會생산의 증가와 수륙교통의 발달로 외국과의 경제 문화교류가 늘어나면서 方劑學은 현저하게 발전하였다. 당시의 方劑學은 크게 세가지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임상경험의 증시, 대형 方書의 출현, 그리고 외국과의 醫學과 醫方의 교류이다<sup>4)</sup>.

#### 2. 王燾의 생애와 外臺秘要

本書의 저자는 唐의 王燾인데, 그는 일찍이 어려서 病이 많았고 자연히 醫學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sup>5)</sup> 本書를 저술하게 되었다. 本書는 天寶 11년(AD 752년)에 이루어졌으며 王燾가 弘文館 관리로 있었을 때 이전의 여러 醫家의 서적 수천권을 모아서 이를 수년간 연구하여 本書를 저술하였다<sup>6)</sup>. 王燾는 《外

1) 姜靜嫻, 盛增秀, 略論晉唐時期的方劑學, 陝西中醫, (16)10, 1995: p.477  
2)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p.129

3) 洪元植, 前揭書: p.108  
4) 姜靜嫻 외, 前揭書: p.477  
5) 洪元植, 前揭書: p.129  
6) 洪元植, 前揭書: p.129, “凡古方纂得五六十家 新撰者向數千百卷 皆研其總領 核其指歸.....伏念旬歲 上

臺秘要》에서 唐이전의 醫學을 정리, 총결하였고, 醫學 방면뿐 아니라 文獻學 방면에서도 많은 업적을 남겼다<sup>7)</sup>.

1) 醫學 방면의 업적

《外臺秘要》는 隋唐時代 이전의 韓醫學 발전을 반영하였으며, 王燾가 論한 것에는 內, 外, 婦, 兒, 五官, 精神病, 外傷의 救急法 뿐만 아니라 獸醫 방면도 포함되어 이전의 각종 醫書보다 그 규모가 크고, 많은 疾病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한 묘사를 하였다.

2) 文獻學 방면에서의 업적

王燾는 秦漢에서 唐 초기까지의 醫學書籍을 정리·보존하여 《外臺秘要》에 69家 2802條의 條文을 인용하였는데, 이중 《傷寒論》과 《諸病源候論》, 《劉涓子遺方》, 《甲乙經》 등이 현존하고 있으며, 기타 范汪의 《范氏方》, 陳延之의 《小品方》, 僧深의 《深師方》, 崔知悌의 《崔氏方》, 張文仲의 《張文仲方》, 許仁則의 《許仁則方》 甄立言의 《古今錄驗方》, 宋俠의 《經心錄》, 謝士秦의 《刪繁方》, 姚僧坦의 《集驗方》, 唐玄宗의 《廣濟方》, 孟詵의 《必效方》, 劉昫의 《劉氏方》, 李郎中の 《近效方》, 저자불명의 《救急方》, 《延年秘錄》, 《略急方》 등 약 십여종의 醫書는 宋代에 이르러 모두 분실되었고, 王燾의 인용으로 그 일부분이 남아있게 되었다<sup>8)</sup>. 《外臺秘要》에서는 書名과 卷題를 모두 밝혀놓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隋唐時期에 이미 분실된 많은 方書의 기본내용을 엿볼수 있다<sup>9)</sup>.

3. 外臺秘要의 原文 구성

自炎? 迄于盛唐 括囊遺闕 稽考隱秘 不歸盡心焉”

7) 王云凱 외, 中國名醫名著明方, 河北,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3: p.22 “唐以前之方 賴此而存, 其功亦不可淺”

8) 王云凱 외, 前掲書: p.22

9) 洪元植, 前掲書: p.129

《外臺秘要》는 全書 40卷중, 1-20卷은 內科 病을 기술하고 21-22卷은 五官病을, 23-24卷은 糜瘡, 癰癤, 癰疽 등의 病을, 25-27卷은 二陰病을, 28-30卷은 中惡, 金瘡, 惡疾, 大風 등을, 31-32卷은 丸散 등을, 33-34卷은 婦人病을, 35-36卷은 小兒病을, 37-38卷은 乳石을, 39卷은 明堂灸法을, 40卷은 蟲獸傷과 畜疾을 기술하고 있다.

王燾는 매 條文에 있어서 理論을 먼저 論하고, 나중에 方劑를 論했으며 次序가 정연하다. 그는 1104개의 條文에 대하여 理論과 方劑를 인용하였고, 原書의 出處와 來原과 書名과 卷數를 기록하였다. 또한 處方을 論함에 있어서 여러 책에 인용되고 있는 方劑는 그 出處를 모두 기록하였다<sup>10)</sup>.

4. 《外臺秘要》의 中風門에서 인용된 서적

王燾는 《外臺秘要》를 저술함에 있어서, 醫論 부분은 전반적으로 《諸病源候論》을 위주로 하였고 醫方 부분은 《千金要方》에서 뽑은 것이 제일 많다<sup>11)</sup>. 中風門에서는 21條의 醫論 부분중에서 《諸病源候論》에서 15條, 《千金要方》에서 1條, 《千金翼方》에서 3條, 《許仁則方》 1條, 《張文仲方》 1條 등으로 71.8%의 醫論을 《諸病源候論》에서 인용하였으며 處方に 있어서는 전체 125개의 處方중에서 《千金要方》에서 52方, 《古今錄驗》 18方, 《深師方》 22方, 《延年方》 6方, 《肘後方》 3方, 《備急方》 7方, 《必效方》, 《廣濟方》, 《崔氏方》 2方, 《近效方》 1方, 《范汪方》 1方, 《倉公方》 1方 등 전체의 40.8%의 處方을 《千金要方》에서 인용하였다.

5. 重要 原文과 處方

1) 中風及 諸風方 一十四首

10) 王云凱 외, 前掲書: p.22

11) 洪元植, 前掲書: p.129

【原文】 病源 中風者 風氣中於人也. 風是四時之氣 分布八方 主長養萬物 從其鄉來者 而人中少死病 不從鄉來者 人中多死病. 其為病也<sup>12)</sup> 藏於皮膚之間 內不得通 外不得泄 其入經脈 行於五臟者 各隨臟腑而生病焉.

【解說】 이 條文은 《諸病源候論》 風病諸候 上卷의 서두인 中風候에 있는 원문을 인용한 것으로서, 中風의 개념, 발생원인과 四時 자연현상의 차이에 따른 예후 및 병리기전에 대해 서술되어 있다.

中風의 발생기전에 대해서는 《素門·風論》의 “風氣藏於皮膚之間 內不得通 外不得泄<sup>13)</sup>”이라고 서술된 침입상황에, “其入經脈 行于五臟者 各隨臟腑而生病焉<sup>14)</sup>”이라고 설명을 더욱 자세히 하였다<sup>15)</sup>.

【原文】 心中風 但得偃臥 不得傾側<sup>16)</sup>. 若脣赤流汗者 可療 急灸心俞百壯. 若脣或青或黑或白或黃 此是心壞為水 面目亭亭時悚動者 不可復療 五六日而死.

肝中風 但踞坐 不得低頭. 若繞兩目連額色微有青 脣青面黃者 可療 急灸肝俞百壯. 若大青黑面一黃一白 是肝已傷 不可復療 數日而死.

脾中風 踞而腹滿. 通身黃 吐鹹汁出者 可療 急灸脾俞百壯. 若手足青者 不可復療.

腎中風 踞而腰痛 視脇左右 未有黃色 如餅棗大者 可療 急灸腎俞百壯 若齒黃赤鬚髮直 面土色者 不可復療.

肺中風 偃臥而胸滿短氣 冒悶汗出 視目下鼻上下兩邊 下行至口色白者 可療 急灸肺俞百壯 若色黃 為肺已傷 化為血 不可復療 其人當妄

掇空指地 或自拈衣尋衣縫 如此數日而死. 診其脈虛弱者 亦風也. 緩大者 亦風也. 浮虛者 亦風也. 滑數者 亦風也.

【解說】 《素門·風論》의 五臟風<sup>17)</sup>의 인용이다.

中風을 五臟別로 분류한 것은 《諸病源候論》과 《千金要方》에서도 동시에 보이고 있다.

【原文】 千金翼 中風論 聖人以爲風 是百病之長 深爲可憂 故避風如避矢 是以禦風邪 以湯藥鍼灸蒸熨隨用一法 皆能愈疾 至於火艾 特有奇能 雖曰針湯散 皆所不及 灸爲其最要.

又論曰 學者 凡將欲療病 先須灸前諸穴 莫問風與不風 皆先灸之 此之一法醫之大術宜深體之要中之要無過

【處方】

▷深師 桂枝湯  
療中風汗出乾嘔桂枝湯方  
桂心 甘草 大棗

▷深師 桂枝湯  
療中風 身體煩疼 惡寒而自汗出 頭強痛急方  
桂心 生薑 甘草 葛根 芍藥 大棗

▷深師 麻黃湯  
療中風 氣逆滿悶短氣方  
麻黃 甘草 石膏 杏仁 人參 乾薑 茯苓 防風 桂心 半夏

▷深師 茯苓湯  
療中風入腹 心下如刺 不得臥 或在脇下轉動無常 腹滿 短氣 憊憊欲死 此病或中虛冷 或素有宿食 食飲不消 或素風氣在內 今得他邪 復于五臟 故成此方

茯苓 芎藭 乾薑 芍藥 白朮 當歸 人參 枳實 甘草  
▷千金要方 竹瀝湯

又凡初得風 四肢不隨 心身愒愒 眼不識人 言不出口 凡中風多有熱氣 服藥當須慎酒麵羊肉生菜冷食猪魚鷄牛馬蒜 乃可差得患則服此竹瀝湯方

12) 巢元方, 諸病源候論, 서울, 大成文化社, 1992: p.8 “也”가 “者”로 되어 있음  
13)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19  
14) 巢元方, 前揭書: p.8  
15) 김선영, 이동원, 신길조, 이원철, 諸病源候論의 中風에 관한 고찰, 東國大學校 韓醫學研究所 論文集, (5)1: p.210  
16) 巢元方, 前揭書: 《諸病源候論》에서는 “不得傾側”뒤에 “汗出”의 기제가 있다.

17) 任應秋, 前揭書: p.121

竹瀝 生薑汁 生薑汁

※ 《千金要方》에서는 風非에 사용되었다.

▷ 千金要方 又方

麻黃 防風 芎藭 防己 附子 人蔘 芍藥 黃芩 桂心 甘草 生薑 杏仁 羚羊角 竹瀝 生薑汁 石膏

▷ 千金要方 又方

竹瀝 防己 麻黃 防風 升麻 桂心 芎藭 獨活 羚羊角

※ 《千金要方》에서는 風非에 사용되었다.

▷ 千金要方 又方

防風 麻黃 芍藥 防己 桂心 黃芩 附子 甘草 白朮 人蔘 芎藭 獨活 竹瀝 羚羊角 升麻 石膏 生薑

▷ 千金要方 又紫散方

防風 獨活 芍藥 黃芪 人蔘 芎藭 白朮 丹蔘 薯蕷 茯神 桂心 麥門冬 山茱萸 厚朴 牛膝 五茄皮 天門冬 升麻 羚羊角 地骨皮 秦艽 石斛 防己 甘草 麻黃 甘菊花 薏苡仁 石膏 橘皮 生薑 乾地黃 附子 遠志

▷ 千金要方 荊瀝方

又凡患風人多熱 宜服荊瀝方

荊瀝 竹瀝 生薑汁

▷ 千金方 防風湯

主偏風 甄權處 治安平公方

防風 白朮 芎藭 白芷 牛膝 狗脊 卑薜 薏苡仁 杏仁 人蔘 葛根 羌活 麻黃 石膏 桂心 生薑

※ 《千金要方》에서는 偏風에 기재되어 있다.

▷ 千金方 又方

又一切風虛方 常患頭痛欲破者

杏仁

▷ 備急方

獨活 桂心 酒

▷ 近效 薏苡仁湯

療諸風方

薏苡仁 麥麥 生薑 茯神 生犀角末 烏梅 麥門冬 竹瀝 白密

2) 卒中風方 七首

【解説】 이 條文은 醫論이 없어 卒中風의 의미나 정의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四肢不仁, 善笑不息, 身體緩急, 舌強不語, 口目不正, 精神悶亂 등의 症狀만을 기재하였다. 治療에 있어서는 6개의 藥物療法과 1개의 灸法이 이용되었는데, 藥物의 내용은 麻黃 桂心, 杏仁, 芎藭, 石膏 등 續命湯類의 藥物이 대부분이고 灸法은 《備急方》에서 인용하여 제 3, 5脊椎에 灸法을 사용하여 中風急性期에 응용한다고 하였다.

【處方】

▷ 千金 芎藭湯

主卒中風 四肢不仁 善笑不息方

芎藭 杏仁 黃芩 當歸 石膏 麻黃 桂心 秦艽 甘草 乾薑

※ 《千金要方》에서는 賊風門에 기재되어 있고 “善笑不息”의 표현은 없다.

▷ 千金 又方

芎藭 黃芩 當歸 桂心 秦艽 乾薑 甘草 麻黃 黃連 杏仁

▷ 崔氏 小續命湯

療卒中風欲死 身體緩急 口目不正 舌強不能語 奄奄忽忽神精悶亂 諸風服之皆驗 不令人虛 方出小品

麻黃 人蔘 黃芩 芍藥 芎藭 甘草 杏仁 桂心 防風 附子 生薑 (千金有防己一兩)

▷ 崔氏 又續命湯

麻黃 茯神 生薑 附子 防己 甘草 芎藭 細辛 白鮮皮 杏仁 人蔘 羌活 桂心

▷ 備急方

要卒中風 得中風急悶亂欲死方

▷ 備急方

不能語者

灸法 灸第三或第五椎上 百五十壯

▷ 古今錄驗 小續命湯

療卒中風欲死 身體緩急 目不正 舌強不能語 諸中風服之皆驗

大附子 芍藥 生薑 芎藭 甘草 麻黃 白朮 木防己 防風 黃芩 桂心 人蔘

3) 四時中風方 四首

【解説】四時中風方에서는 醫論은 없고 四時에 따른 中風의 處方만이 기술되어 있다. 中風을 四時에 따라 분류한 것은 《古今錄驗》이 시초로, 王燾는 이를 《外臺秘要》에서 인용하였다. 四時에 따른 中風의 차이를 보면, 주로 脈으로 나타나며 봄에 脈이 浮短한 것은 예후가 좋지 않고, 大하면서 長한 것은 예후가 좋다고 하였다. 여름에는 脈이 沈緊하며 惡寒이 있고 汗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가을에는 脈이 浮大하면서 洪長하다고 하였으며, 겨울에는 脈이 浮大하다고 하였다.

【處方】

▷古今錄驗 療中風 發三春 脈浮短者多凶 大而長可療 青龍湯方

甘草 麻黃 桂心 大棗 生薑 芍藥

▷又療中風 發三夏 脈沈緊惡寒不汗煩 三陽湯方

當歸 生薑 甘草 麻黃 杏仁 石膏

▷又療中風 發三秋 脈浮大而洪長 扶金湯方

葛根 獨活 附子 石膏

▷又療中風 發三冬 脈浮大者 溫脾湯方

芍藥 石膏 甘草 黃芩 杏仁 麻黃 蜀椒 防風 桂心

4) 中風發熱方 三首

【處方】

▷深師 十一味防風湯

療中風發熱無汗肢節煩疼急痛大小便不利方

防風 當歸 麻黃 甘草 茯苓 天門冬 附子 乾地黃 白朮 山茱萸 黃芩

▷深師 防風湯

防風 白朮 桂心 蜀椒 黃芩 細辛 芍藥 人蔘 甘草 麻黃 石膏 大棗

▷范汪 大戟洗湯

療中風發熱大戟洗湯方

適寒溫 洗之 從上下 寒乃止 小兒三指撮之 醋漿四升煮如上法

大戟 苦蔘

5) 中風角弓反張方 七首

【原文】病源 風邪傷人 令腰背反折 不能俛仰 似角弓者 由邪入諸陽經故也.

【解説】오늘날 角弓反張은 病人의 頭項이 뻣뻣해지고 腰背가 뒤로 젖혀져서 마치 角弓처럼 후향으로 만곡된 것으로 風病 혹은 熱邪가 熾盛하여 動風하는 일종의 증상으로 경풍, 파상풍 및 다중병인에 의해 야기되는 뇌염 및 뇌막염, 경막하 출혈 등에서 볼수 있는 증상이다<sup>18)</sup>.

【處方】

▷小品 大嚴蜜湯

療中風 身體角弓反張 并主卒心腹絞痛方

茯苓 芍藥 當歸 甘草 桂心 梔子 莫茱萸 乾薑 乾地黃

▷千金 小嚴蜜湯

主惡風 角弓反張 飛尸入腹絞痛 悶絕往來有時 筋急少陰傷寒 口噤不利方

大黃 雄黃 青羊脂 乾薑 桂心 芍藥 甘草 細辛 乾地黃 莫茱萸 當歸

※《千金要方》에서는 賊風門에 기재되어 있다.

▷千金 又方

又療半身不隨 大小便不利方

人蔘 桂心 當歸 獨活 黃芩 乾薑 甘草 石膏 杏仁

▷千金 又方

又療賊風 口噤 角弓反張瘞者方

當歸 防風 獨活 麻黃 附子 細辛

▷備急 又方

療若 身體角弓反張 四肢不隨 煩亂欲死者方

清酒 鷄屎白

▷必效 又方

療諸風入耳 角弓反張 及婦人風方

烏頭 鷄糞

▷古今錄驗 西州 小續命湯

療卒中風 身體直 角弓反張 口噤

麻黃 乾薑 附子 防風 桂心 白朮 人蔘 芍藥

18) 김선영 외, 前掲書: p.221

當歸 甘草 杏仁

6) 風口噤方 一十首

【原文】病源 諸陽經筋 皆在於頭 三陽之筋 并絡入於頤 頰夾於口 諸陽爲風寒所客則筋急 故口噤不開 診其脈遲者 生

【解說】《諸病源候論》의 風口噤候와 동일한 문장이다. 手足 三陽經筋은 모두 頭部에 분포하며 手太陽, 手陽明의 手三陽經筋은 모두 頰에 연결되어 있고, 足陽明의 筋은 頤部에서 上行하여 口脣을 끼고 순행하는데, 陽經이 風寒의 侵襲을 받으면 頤, 頰, 口脣의 근육이 緊縮하여 口噤으로 입을 열지 못한다. 口噤의 예후로 脈이 遲한 者는 예후가 좋다.

【處方】

▷深師 竹瀝湯

療卒中惡風 熱倒悶 口噤不能語 肝厥方

淡竹瀝 防風 葛根 菊花 細辛 芍藥 白朮 當歸 桂心 通草 防己 人蔘 甘草 附子 茯苓 玄參 秦朮 生薑 楓寄生

▷深師 甘竹瀝湯

療卒中惡風 熱倒悶 口噤不能語 肝厥尸躄死不識人 閉目灸針不知痛 風狂宜服此湯反

甘竹瀝 生薑 防風 甘草 防己 麻黃 人蔘 黃芩 白朮 細辛 茵芋 秦朮 桂心 附子

▷千金 排風湯

主諸毒風氣 邪風所中 口噤 悶絕不識人 身體疼煩 面目暴腫 手足腫方

犀角末 羚羊角 敗齒末 升麻末

※ 《千金要方》에서는 賊風門에 기재되어 있다.

▷千金 又方

又療中風口噤不能言者方

防己 葛根 桂心 麻黃 甘草 防風 芍藥 生薑

▷千金 又方

淡竹瀝

▷千金 又方

白朮 酒

※ 《千金要方》에서는 賊風門에 기재되어 있고 主治症은 “治中風口噤 不知人”이다.

▷千金 又方

荊瀝

▷千金 又方

豆豉 莫茱萸

▷備急 又方

大豆 乾薑 蜀

▷備急 又方

大豆 酒

7) 風口喎方 九首

【原文】病源 風邪入於足陽明手太陽之經 遇寒則筋急引頰 故使口眼喎斜 言語不正 而目不能平視. 診其脈浮而遲者 可療 養生方云 夜臥當耳勿得有孔 風入耳中喜<sup>19)</sup>口喎.

【解說】《諸病源候論》의 風口喎候와 동일한 원문이다. 中風에서 口眼喎斜가 일어나는 기전은, 風邪가 足陽明經과 手太陽經을 침입한 상태에서 寒氣를 만나면 근육이 긴장되어 頰을 당겨 발생한다. 口眼喎斜의 예후로 脈이 浮하면서 遲한 者는 치료할 수 있다.

【處方】

▷廣濟

療風著口面喎語不多轉方

生地黃汁 獨活

▷深師 續命湯

療中風口喎噤 諸疾卒死 不知人 補虛起死回生方

人蔘 木防己 麻黃 芍藥 芎藭 甘草 黃芩 白朮 桂心 防風 大附子 生薑

▷深師 又方

又療中風 面目相引偏僻 牙車同急 舌不得轉方

牡蠣 磐石 附子 竈中黃土

▷千金 附子散

主中風手臂不仁口面僻方

附子 桂心 細辛 防風 人蔘 乾薑

※ 《千金要方》에는 風癱에 기재되어 있다. 이하 모두 같다.

19) 巢元方, 前掲書: 《諸病源候論》에서는 “中喜” 다 음에 “습”이 기재되어 있다.

▷千金

又口喎不正方

空青如豆

▷千金

又療卒中風口喎方

灸法

▷千金 又方

灸法 交脈

▷千金 又方

炒大豆 酒

▷千金 又方

大皂莢

五兩去皮 子下薛以三年 大醋和 右喎塗左左喎塗右 乾更塗<sup>20)</sup>

8) 風失音不語方 八首

【原文】病源 喉嚨者 氣之所以上下也. 會厭者 聲之戶. 舌者 聲之機. 脣者 聲之扇也. 風寒客於會厭之間 故卒然無音 皆由風邪所傷故 謂風失音不語. 養生方云 醉臥當風 使人發瘡.

【解說】《靈樞》에 나오는 “咽喉者 水穀之道也. 喉嚨者 氣之所以上下也. 會厭者 聲音之戶也. 口脣者 音聲之扇也. 舌者 音聲之機也<sup>21)</sup>.”를 《諸病源候論》 中風候에서 인용한 것이다. 失音不語는 風寒이 會厭에 침입하여 갑자기 말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處方】

▷廣濟方

療風失音不得語方

羌活 甘草 人參 荊瀝 淡竹瀝 生地黃 大附子

▷深師 防風湯

療中風兩目不開 不能言 短氣欲死方

防風 甘草 黃芩 茯苓 當歸 杏仁 秦艽 生薑 乾薑 麻黃

▷深師 四逆湯

療卒中風 不能言 厥逆無脈 手足拘急者方

山茱萸 細辛 乾薑 甘草 麥門冬

▷肘後 療卒不得語方

以苦酒煮芥子 薄頸一周 以衣包之 一日一夕 乃解則差

苦酒 芥子

▷肘後 又方

大豆

▷千金 又方

黑炭丸

▷千金 又方

濃煮桂汁

※《千金要方》에서는 主治症으로 “治卒失音方”으로 기재되어 있다.

▷千金 又方

濃煮豉汁含之亦可

濃煮豆汁

9) 風不得語方 二首

【原文】病源 脾脈絡胃 夾咽 連舌本 散舌下 心之別脈 係舌本<sup>22)</sup> 今心脾二臟受風邪 故舌強不得語也.

【解說】《諸病源候論》 風舌強不得語候의 원문과 동일하다. 《金匱要略》에서는 “邪入於臟 舌則難言 嘔吐涎<sup>23)</sup>”이라고 표현하였는데, 巢元方은 이를 좀더 발전시켜 五臟과 舌難言의 관계를 서술하였다. 이는 經絡의 체계로 본 것으로 脾脈이 胃에 絡하고 咽喉를 따라 舌本에 연결되며 心의 別絡이 舌本에 도달하는 노선에 따라 心脾가 風邪를 맞게 되면 舌이 運動을 못하여 구어장애가 생긴다.

【處方】

▷救急方

療中風 身體緩急 口目不正 舌強不能語 奄奄忽忽神情悶亂 諸風脈之皆驗 不令人虛湯方 忽神情悶亂 諸風服之皆驗 不令人虛湯方

麻黃 防己 黃芩 桂心 芍藥 甘草 防風 人參

20) 신광호, 한방의용약, 서울, 도서출판 열린책들, 1994: p.191-196

21) 任應秋, 前揭書: p.443

22) 任應秋, 前揭書: p.301 “脾足太陰之脈 膈脾 絡胃 上膈 挾咽 連舌本 散舌下”, “心手少陰之脈 絡小腸 從心系上挾咽”

23)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大成文化社, 1984: p.365

附子 生薑

▷古今錄驗 療卒不得語方

人乳汁 美酒

10) 風身體手足不隨方 二首

【原文】病源 身體<sup>24)</sup>手足不隨者 由體虛腠理開 風氣傷於脾胃之經絡也. 足太陰爲脾之經 脾與胃合 足陽明爲胃之經 爲水穀之海也. 脾候身之肌肉 主爲胃消行水穀之氣 以養身體四肢. 脾氣弱則肌肉虛 受風邪所侵 故不能爲胃通行水穀之氣 致四肢肌肉無所稟受 而風邪在經絡 搏於陽經 氣行則遲 關機緩縱 故令身體手足不隨也. 診其脈 脾脈緩者 爲風痿. 四肢不用 又心脈腎脈俱至 則難以言 九竅不通 四肢不舉 腎脈來多 則死也. 其湯熨針石 別有正方 補養宣導 今附於後.

【解說】《諸病源候論》身體手足不隨候에 기재되어 있는 원문과 동일하다. 手足不隨는 身體가 허약하여 腠理가 열린 상태에서 風氣가 脾胃의 經絡에 침입하여 발생한다. 足太陰脾經과 足陽明胃經은 表裏를 이루고 脾의 外候는 肌肉이며 胃를 대신하여 水穀之氣를 運행하여 身體四肢에 營養을 공급한다. 따라서 脾胃가 약하면 肌肉이 허한 상태에서 風邪가 침입하므로 水穀之氣를 運행하지 못하게 된다. 手足不隨의 예후는 주로 脈으로 판단하였고, 脈狀에서 脾脈이 緩한 것은 風痿로서 四肢의 運動장애가 나타난다. 心脈과 腎脈이 모두 나타나게 되면 心腎에 모두 병이 이르러 언어장애, 九竅不通, 四肢不舉의 증상이 나타나고 腎脈이 비교적 크게 나타날 경우 예후가 불량하다고 보았다.

【處方】

▷千金 白朮醪酒

療心虛寒性 氣反常心 手不隨 語聲冒昧 其所疾源 厲風損心

白朮 地骨根皮 荊實 菊花

24) 巢元方, 前揭書: 《諸病源候論》에서 “身體”는 없다.

※ 《千金要方》에서는 賊風門에 기재되어 있다.

▷古今錄驗 小續命湯

療中風入藏身緩急不隨不能語方

麻黃 桂心 甘草 人參 芍藥 芎藭 黃芩 防風 當歸 石膏 白朮 生薑 附子

11) 風半身不隨方 八首

【原文】病源 風<sup>25)</sup>半身不隨者 脾胃氣弱 血氣偏虛 爲風邪所乘故也. 脾胃爲水穀之海 水穀之精 化爲血氣潤養身體 脾既弱 水穀之精 潤養不周 致血氣偏虛 而爲風邪所侵 故半身不隨也. 診其脈 寸口沈細 名陽中之陰. 苦悲傷不樂<sup>26)</sup>惡聞人聲 少氣時汗出 臂偏不舉 又寸口偏絕者 則<sup>27)</sup>不隨 其兩手盡絕者 不可療.

【解說】《諸病源候論》의 風半身不隨候와 동일한 원문이다. 半身不隨는 脾胃의 氣가 약하고 血氣가 한쪽으로만 虛하여 風邪가 침입한 까닭이다. 脾胃는 水穀之海이고 水穀之精이 血氣로 化하여 身體에 營養을 공급하게 되는데, 脾臟이 약하여 水穀之精이 身體를 營養하지 못하고 血氣가 한쪽으로 虛하게 되면 風邪가 침입하여 半身不隨가 된다. 만약 항상 슬피하고, 사람소리를 싫어하며, 팔을 들수 없고, 寸口脈이 한쪽으로 끊어지게 되면 半身不隨가 되고, 양쪽손의 맥이 모두 끊어지게 되면 예후가 좋지 않다.

【處方】

▷深師 十物獨活湯

療風半身不隨 口不能言

獨活 桂心 生葛根 甘草 防風 當歸 生薑 芍藥 附子 半夏

▷千金 竹瀝湯

療卒暴風 口面僻 半身不隨 不轉

25) 巢元方, 前揭書: 《諸病源候論》에서는 “風”의 기재가 없다.

26) 巢元方, 前揭書: 《諸病源候論》에서는 “苦” 앞에 “病”이 기재되어 있다.

27) 巢元方, 前揭書: 《諸病源候論》에서는 “則” 뒤에 “偏”이 기재되어 있다.

竹瀝 防風 防己 升麻 桂心 芎藭 羚羊角 麻黃

▷千金 薑附湯

又療心虛寒 風 半身不隨 骨節離解 緩弱不用 便利無度 口面喎斜

乾薑 附子 麻黃 芎藭 桂心

※《千金要方》에서는 賊風門에 기재되어 있다.

▷千金 又方

療大風半身不隨方

蠶絲

▷古今錄驗 續命湯方

療大痺 一身不隨 或半身一手一臂 口不能言 習習不知人 不覺痛痒

麻黃 防風 石膏 黃芩 乾地黃 芎藭 當歸 甘草 杏仁 桂心

▷古今錄驗 獨活湯

療風半身不隨 口不能言方

獨活 生葛根 芍藥 防風 半夏 桂心 當歸 附子 甘草 生薑

▷古今錄驗 八風續命湯

療半身不隨 手脚拘急 不得屈身 體冷 或癡 或智 身強直不語 或生或死 狂言不可名狀 或角弓反張 或欲得食 或不用食 或大小便不利 皆療之方

麻黃 人蔘 桂心 當歸 獨活 甘草 石膏 黃芩 乾薑 杏仁

▷古今錄驗 八風九州湯

療男子婦人寒冷不自愛護 當風解衣 汗出臥冷濕地 半身不隨 手足苦冷 或不隨 或俛仰屈伸難 周身淫淫痺 四肢不收 狀如風狂 飲食損少方

麻黃 甘草 乾薑 附子 防風 獨活 石膏 茯苓 白朮 芎藭 柴胡 當歸 人蔘 杏仁 細辛

### 12) 癱瘓風方 四首

【解說】醫論은 없고 處方만 기재되어 있다. 癱은 四肢가 뒤틀리는 증상을 말하고 瘓은 전신마비되어 불편한 것을 일컫는 말이다<sup>28)</sup>.

【處方】

▷廣濟方

廣濟療癱瘓風及諸風手足不隨腰脚無力方

驢皮膠

▷廣濟 又方

又療熱風癱瘓常發者方

羌活 毅子

▷文中 又方

療癱瘓風方

生地黃汁 淡竹瀝汁 荊瀝 防風 獨活 附子

▷元侍郎希聲集方

療癱瘓風神驗方

側子 五加白皮 磁石 甘菊花 漢防己 羚羊角 杏仁 乾薑 芍藥 麻黃 薏苡仁 防風 芎藭 秦朮 甘草

### 13) 風痹方 三首

【原文】病源 風痹之狀 身體無痛 四肢不收 神志不亂 一臂不隨者 風痹也 時能言者可治 不能言者不可治也

【解說】《諸病源候論》風痹候의 원문과 동일하다. 《靈樞·熱病》에서 말하기를, “非之病也 身體無痛 四肢不隨 智亂不甚 其言微知可治 甚則不能言 不可治也<sup>29)</sup>”이라고 하였는데, 巢元方이 여기에 “一臂不隨”의 症狀을 추가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處方】

▷千金 風痹方

千金 療風痹方 風痹者 卒不能語 口噤手足不隨而不強直是也方

伏龍肝

▷古今錄驗 西州續命湯

療中風痹 身體不自秀口 不能語 冒昧不識 人不知痛處 但救急中外皆痛 不得轉側 悉之方

麻黃 石膏 桂心 當歸 甘草 芎藭 乾薑 黃芩 杏仁

※《千金要方》에서는 諸風門에 기재되어 있

28) 弘字出版社編輯部, 最新弘字玉篇, 서울, 民衆書林, 1984: p.303

29)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臺北, 台聯國風出版社, 1965: p.1125

고 主治症으로 “治中風痲 身體不自收口 不能語 冒昧不識 不得轉側”으로 되어 있다.

▷古今錄驗 又續命湯

中風痲 身體不能自收 口不能言 冒昧不知人 不知痛處 或拘急不得轉側 姚云與大續命同兼療產後婦人去血者 及老人小兒方

甘草 桂心 當歸 人蔘 石膏 乾薑 麻黃 芎藭 杏仁

14) 偏風方 九首

【原文】病源 偏風者 風邪偏客於身一邊也. 人體有偏虛者 風邪乘虛而傷之 故爲偏風也 其狀或不知痛痒 或緩縱 或痺痛是也

【解說】《諸病源候論》偏風候와 동일한 원문이다. 偏風은 인체의 한쪽으로만 風邪가 침범하여 생기는데 인체의 한쪽이 虛하면 風邪가 虛한 부위를 따라 침범하므로 偏風이라고 한다. 偏風의 증상은 통증과 가려움증을 모르거나, 혹은 기욕이 늘어지며 저린 증상, 통증이 있다. 한편, 偏風의 치법으로 導引法의 예를 들었다.

(偏風은 半身不隨의 다른 이름으로<sup>30)</sup> 한쪽 肢體가 半身不隨가 되거나 隨意運動이 불가능한 증후로, 오래된 病人 경우 患肢가 健側에 비해 枯瘦하고 麻木不仁이 되는 것으로 미루어 中風後遺症 등의 질환에 속한다고 보여진다<sup>31)</sup>.)

【處方】

▷廣濟 偏風麻子湯

又療偏風不隨 服補麻子湯後次服枳實丸方

大麻子 麻黃 防風 生薑 橘皮 荊芥 芎藭 桂心 石膏 竹鹽 鹽白 芩實 蜀椒 杜仲 獨活

▷廣濟 枳實丸

枳實 防風 羌活 人蔘 羚羊角 甘菊花 乾葛 薏苡仁 桂心 茯苓 升麻 黃連 乾地黃

▷千金 甘草湯

療偏風積年不差 手脚枯細 面目喎僻 精神不足

言語倒錯方

※《千金要方》에는 風癱에 기재되어 있다.

甘草 桂心 芎藭 麻黃 人蔘 當歸 芍藥 獨活 秦艽 茯神 生薑 防風 附子 側子 白朮 黃芩 細辛 甘菊花 淡竹瀝

▷千金 又方

青松葉 清酒

▷備急 又方

徐玉療偏風半身不隨兼失音不語方

杏仁

▷延年方

療偏風半身不隨 冷痺疰等方

桃仁

▷延年 小續命湯

主偏風半身不隨 口眼喎不能言語 拘急不得轉側方

麻黃 防己 附子 芎藭 桂心 黃芩 芍藥 人蔘 甘草 杏仁 生薑 防風

▷延年 又方

又急療偏風膈上風熱經心藏恍惚 神情天陰心中 惛混如醉不醉方

淡竹瀝 羚羊角 石膏 茯神

▷延年 又方

生附子 無灰酒

15) 風猥<sup>32)</sup>退方 三首

【原文】病源 風猥退者 四肢不收 身體疼痛 肌肉虛滿 骨節懈怠 腰脚緩弱 不自覺知是也. 皮肉薄弱<sup>33)</sup> 不乘四時之虛風 故令風邪侵於分肉之間 流於血脈之內 使之然也. 經久不差則變成風水也<sup>34)</sup>

【解說】猥는 망녕되다, 굵다<sup>35)</sup>의 의미로, 猥退는 사지를 가늘 수 없고 身體疼痛이 있으며 肌肉이 붓고, 관절이 이완되며 허리와 다

30) 李和峻 의, 中風證候의 東西醫學의 比較考察, 대한한방내과학회지, 14(1), 서울, 1993: p.126

31) 김선영 의, 前揭書: p.217.

32) 巢元方, 前揭書:《諸病源候論》에서는 “猥”로 되어 있다.

33) 巢元方, 前揭書:《諸病源候論》에서는 “皮肉虛弱” 앞에 “由”의 기재가 있다.

34) 巢元方, 前揭書:《諸病源候論》에서는 “水也” 대신 “水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5) 弘字玉篇編輯部, 前揭書: p.281

리가 약해지나 이를 자각하지 못하는 증상을 말한다. 원인은 皮肉이 얇아서 四時의 虛風을 이기지 못하여 風邪가 分肉之間에 침입하여 血脈의 內로 침입한 까닭이다. 猥退가 오래되면 風水의 病이 된다.

【處方】

▷千金 半身不隨方

療猥退半身不隨失音不語方

杏仁

▷千金 又方

蓖麻子脂

▷千金翼 又方

療猥退風方

蒼耳子 羊桃 蒴藋 赤小豆

16) 風痺曳舌急攣臂方 二首

【原文】病源風痺曳者 肢體弛緩不收攝也。人以胃氣養於肌肉經脈也。胃若衰損 其氣不實 氣不實則經脈虛 經脈虛則筋肉懈惰 故風邪搏於筋而使痺曳也。

【解說】《諸病源候論》의 風痺曳候와 동일한 문장이다. 痺는 휘늘어진 것을 의미하고 曳는 끌어당기는 것을 의미하여 痺曳는 肢體의 筋脈이 이완되어 수축되지 못하는 것으로 四肢의 운동장애를 나타내는 證候이다.

【處方】

▷范汪

療中風蹙不能起逐水消食平胃夏期方

百部 烏頭 牛膝 白朮

▷古今錄驗 獨活湯

療風癱不能言 四肢不收 手足攣攣

獨活 生薑 甘草 桂心 生葛根 芍藥 瓜樓

17) 柔風方 二首

【原文】病源 血氣俱虛 風邪并入 在於陽則皮膚緩 在於陰則腹裏急 柔風之狀 皮外緩 腹裏急 四肢不能自收 裏急不得伸息者 柔風候也<sup>36)</sup>.

【解說】《諸病源候論》 柔風候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柔風의 원인은 血氣가 모두 虛할 때 風邪가 入하여 발생한다고 하였다. 金 등<sup>37)</sup>은 柔風候는 사지마비와 함께 호흡곤란이 일어나는 證候를 말한다고 하였다.

【處方】

▷深師 石膏散

療柔風體疼白汗出 石膏散方

石膏 甘草

▷古今錄驗 獨活葛根湯

療中柔風身體疼痛四肢緩弱 欲不隨 產後柔風亦用此方

羌活 桂心 乾地黃 葛根 芍藥 生薑 麻黃 甘草

18) 許仁則療諸風方 七首

【原文】此等諸風 形候雖別 尋其源也 俱失於養生本氣 既羸偏有所損 或以男女 或以飲食 或以思慮 或以勞役 既極於事能無敗乎. 當量已所歸而捨割之 靜思息事 兼助以藥物 亦有可復之理

【解說】許仁則은 中風은 나타나는 형태와 症候가 다르나, 그 근원을 보면 모두 本氣를 養生하는데 잘못이 있어서 편협하게 손상받은 바가 있어서 발생한다고 하였고, 本氣를 소모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남녀간의 성관계, 음식물, 과도한 思慮, 심한 勞役 등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中風의 治療에 있어서 정신적 안정과 육체적 노동을 피해 약물의 작용을 도와야 한다고 하였다.

【處方】

▷生葛根等 三味湯

生葛根 生薑 竹瀝

▷又附子湯方

附子 生薑 乾薑 桂心 石膏 生犀角 地骨白皮 白朮 獨活 芍藥

不能仰”

36) 巢元方, 前掲書: p.9 “柔風之狀 四肢不能收 裏急

37) 김선영 의, 前掲書: p.213

▷ 薏苡仁等十二味飲

又療風熱未退 服湯日數 未滿病後 未甚 服丸  
宜合薏苡仁等十二味飲服之方

薏苡仁 萎麥 生麥門冬 石膏 杏仁 烏梅 生  
薑 生犀角 地骨皮 人蔘 竹瀝 白蜜

▷ 苦蔘十二味丸

又療風熱未退 頻服湯飲 力不能攻 宜合苦蔘十  
二味丸服之方

苦蔘 乾薑 芎藭 玄蔘 丹蔘 人蔘 沙蔘 白朮  
地骨白皮 獨活 薏苡仁 蜀升麻

▷ 五茄皮等八味藥酒

又至九月以後二月以前 宜合五茄皮等八味藥酒  
細世用下前丸飲之方

五茄皮 薏苡仁 大麻仁 丹蔘 生薑 生地黃  
桂心 大豆

▷ 乾葛散方

又預防熱病急黃賊風乾葛散方

乾葛 乾地黃 新香豉心

▷ 黃連等八味散

又宜前乾葛等三味散 服之 雖覺熱氣少退 熱未  
能頓除 宜合黃連等八味散服之方

黃連 黃芩 乾薑 蜀升麻 知母 乾地黃 梔子  
大青

19) 張文仲療諸風方 九首

【原文】風有一百二十種 氣有八十種 風則大  
體共同 其中有人性各異.

唯脚氣頭風大風上氣 此四色常須服藥不絕自除  
諸患看發則依方喫藥. 夫患者 但春夏三四月 秋  
八九月 取利一行甚妙.

【解說】張文仲은 洛陽사람으로 《療風氣諸  
方》, 《四時常服及輕重大小諸方》 18首와 《隨  
身備急方》 3卷 등을 撰하였고, 일찍이 侍御醫  
尙藥奉饗 등의 직을 역임했다. 그는 中風의  
성질은 대체로 같은데 사람의 人性에 따라  
中風의 발생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계절기후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3-4月, 8-9月에 中風이 많다고 하였다.

【處方】

▷ 桑枝煎

偏風及一切風方

桑枝

▷ 療風飲子

羌活 桂心 人蔘 蜀升麻 茯神 防風 生薑 生  
犀角

▷ 新方十九味丸

四時俱服神方十九味丸

防風 羌活 五茄皮 芍藥 人蔘 丹蔘 薏苡仁  
玄蔘 麥門冬 乾地黃 大黃 青木香 松子仁 磁  
石 檳榔子 枳實 牛膝 茯神 桂心

▷ 又方

又療一切風及偏風發四肢口目喎戾言語蹇澁 其  
湯不許人 勝於續命湯 故錄傳之特宜老人用之  
方

生地黃汁 竹瀝 荊瀝 羌活 防風 蜀附子

▷ 又煮散方

茯神 防風 牛膝 枳實 防己 秦艽 玄蔘 芍藥  
黃芪 白鮮皮 澤瀉 獨活 桂心 五味子 人蔘 薏  
苡仁 麥門冬 羚羊角 石膏 甘草 磁石

▷ 又方

又療一切風乃至十年二十年不差者方

牛蒡根 生地黃 牛膝 枸杞子

▷ 寒水石煮散方

寒水石 石膏 滑石 白石脂 龍骨 桂心 甘草  
牡蠣 赤石脂 乾薑 大黃 犀角

▷ 五粒松酒

五粒松葉 麻黃 防風 黃芪 獨活 秦艽 牛膝  
生地黃 芎藭

▷ 又釀酒方

糯米 麴 防風 蒼耳子

### Ⅲ. 總括 및 考察

兩晉에서 隋唐에 이르는 시기에는 장기간  
에 걸친 臨床經驗의 축적으로 疾病에 대한  
인식과 治療에 있어서 현저한 발전이 있었다.

疾病에 대한 인식면에서, 巢元方은 《諸病  
源候論》에서 疾病을 모두 67門으로 나누고

1729종의 證候를 논술했는데, 이는 이전의 각종 醫書에 비하여 많은 疾病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묘사를 했으며, 病因, 病變, 分形, 鑑別 등의 方面에도 적지 않은 醫見이 있었다.

또한, 治療面에서는 《廣濟方》, 《深師方》, 《古今錄驗》, 《肘後方》 등의 經驗方書籍과 《千金要方》과 《外臺秘要》 같은 綜合方劑書가 출현하여 宋代 이후의 거대 綜合醫書의 편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sup>38)</sup>. 이러한 綜合方劑書 가운데 하나인 《外臺秘要》는 王燾의 著作으로 東漢에서 隋唐時代에 이르는 醫家의 理論을 인용하여 저술하였는데 醫論은 대부분 《諸病源候論》에서 인용하였고, 治方은 《千金要方》에서 뽑은 것이 제일 많다<sup>39)</sup>. 실제로 中風門에서는 전체 醫論의 71.8%를 《諸病源候論》에서 인용하였고 전체 處方의 40.8%를 《千金要方》에서 인용하여 王燾 개인의 독창적인 견해는 거의 없다. 하지만 唐代 이전 數十家의 醫書를 인용함으로써 이들 醫書의 개략적인 내용을 보여주므로 唐代 이전 醫家들의 中風觀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한편 中風의 原因說과 病理機轉에 관한 醫論과 中風治方의 인용에 있어 王燾의 中風觀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의 醫見은 中風의 原因중 일부 內因의 인식과 病理機轉에서 개인 人性에 따른 中風 발생의 차이, 그리고 治療에 있어서 清熱藥 비중의 증가 등 이전의 醫家들보다 일정 부분 진보한 부분이 있다.

《外臺秘要》는 그 구성에 있어 醫論과 處方의 출전을 반드시 밝혔고, 먼저 醫論을 기술하고 나중에 處方을 기술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은 王燾에 의해 처음 시도된 방법으로, 이 방법은 비교적 논리가 정연하여 宋代 方書의 편집에 영향을 주었다<sup>40)</sup>. 한편 《外臺秘要》 中風門의 구성에 있어서 王燾는 中風의

시간적 경과에 따라 急性期와 後遺症期로 나누어 기술한 것으로 보이며 中風의 분류에 있어서 證候와 五臟과 季節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에 저자는 《外臺秘要》의 中風門의 구성과 분류, 中風의 原因, 治法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특히 가장 많이 인용한 《諸病源候論》, 《千金要方》과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 1. 中風門의 구성과 中風의 분류

王燾는 《外臺秘要》의 醫論部分은 대부분 《諸病源候論》을 위주로 기술하였고 中風門의 구성과 명칭에 있어서도 《諸病源候論》의 방법을 인용하였다.

《諸病源候論》의 風病諸候에서는 모두 60종의 證候를 論했는데, 이 중에서 中風候, 風癰候, 風口噤候, 風舌強不得語候, 風失音不得候, 風角弓反張候, 風喎候, 柔風候, 風痲候, 風偏枯候, 風半身不隨候, 風身體手足不隨候, 偏風候, 風不仁候, 風痺曳候, 風猥腿候 등의 16候가 中風의 證候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sup>41)</sup>. 이외에 風痺候, 風濕痺候, 風四肢拘攣不得屈伸候, 風痺手足不隨候, 風濕痺手足不隨候는 痺證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sup>42)</sup> 中風의 證候와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았고, 《千金要方》에서는 痺證을 濕痺, 周痺, 筋痺, 脈痺, 肌痺, 骨痺, 胞痺, 皮痺 등 8종으로 나누어 風痺에 귀속시켜 偏枯, 風痺, 風痲, 風癰 4大證 중 하나로 하여 中風의 證候로 보았다<sup>43)</sup>. 그 외에 巢元方은 風病諸候에서 風驚候, 風狂候 및 多忘候 등의 정신장애와 경련성 질환인 風痙候, 그리고 烏癩候, 刺風候, 癩疹, 風痒 등의 피부병에 대하여도 기술하였다. 간추려 보면 《諸病源候論》에서는 風病諸候에 中風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하지는 않고 風으로 인한 諸疾患과 같이 기술

38) 晉唐時代三大方書의按摩成就與啓示, 北京中醫藥大學學報, (18)6, 1995: p.135

39) 洪元植, 前掲書: p.129

40) 王云凱 외, 前掲書: p.22

41) 김선영 외, 前掲書: p.211

42) 김선영 외, 前掲書: p.228

43) 孫思邈, 前掲書: p.122

하였다. 한편, 《外臺秘要》에서는 中風及諸風方, 卒中風方, 四時中風方, 中風發熱方, 賊風方, 歷節風方, 中風角弓反張方, 風口噤方, 風口喎方, 風失音不語方, 風不得語方, 風身體手足不隨方, 風半身不隨方, 癱瘓風方, 風非方, 偏風方, 風猥退方, 風羸曳及攣臂方, 柔風方, 許仁則方, 張文仲方의 21條로 나누어 기술하였는데, 《諸病源候論》과 《千金要方》과는 달리 痺證에 대한 기재는 없으며 이는 王燾가 中風과 痺證이 다른 證候임을 인식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21條 證候中에서 賊風과 歷節風은 현대의 통풍, 하지부의 혈관염, 신경염, 버거씨병 등의 증상과 유사점을 찾을 수 있는 질환<sup>44)</sup>으로 中風과는 거리가 있고 中風發熱方은 發熱, 無汗, 肢節煩疼, 急痛 등의 증상으로 보건대 外感風寒邪로 인한 傷寒 혹은 傷風 證候로 생각되며 이를 제외한 18條는 中風의 證候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총괄하면 王燾는 中風門을 구성하는데 있어, 대체적으로 《諸病源候論》 風病諸候 중에서 中風에 해당하는 證候를 기재하였고, 痺證에 관계된 證候는 제외하였으며, 여기에 四時中風方과 許仁則, 張文仲의 說을 인용하여 中風門을 완성하였다.

《外臺秘要》中風門의 구성순서를 보면, 中風及諸風方에서는 中風에 대한 病因, 病理에 대한 내용과 傷寒方 위주의 處方이 기술되어 있다. 卒中風方과 四時中風方에서는 中風을 시기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卒中風方에서는 醫論이 없어서 구체적인 卒中風의 정의나 의미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四肢不仁, 善笑不忌, 身體緩急, 舌強不語, 口目不正, 精神悶亂 등의 症狀으로 보건대, 中風 발병시의 症狀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四時中風方에서는 中風을 계절에 따라 분류하여 脈狀의 차이와 處方을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古今錄驗》에 처음 기재되어 있는 것을 《外臺秘

要》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急性期の 中風과 혼동될 수 있는 類似證候이거나 초기 합병증으로 볼수 있는 角弓反張, 口噤에 대한 症狀 설명과 處方이 기술되어 있다. 다음으로 風口喎方, 風失音不語方, 風不得語方, 風身體手足不隨方, 風半身不隨方, 癱瘓風方, 風非方, 偏風方, 風猥退方, 風羸曳及攣臂方, 柔風方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중 柔風, 風非, 風猥退, 風偏枯, 偏風, 風羸曳, 身體手足不隨, 半身不隨, 癱瘓風은 주로 사지의 운동장애와 감각장애에 관한 證候로, 中風後遺症 가운데서 운동 및 감각장애가 나타나는 유형에 따른 특징적인 분류이다<sup>45)</sup>. 口喎는 中風後遺症 가운데서 중추성 안면마비에 해당하는 證候이고 失音不語, 不得語는 감각성, 운동성 실어를 일컫는 표현으로서 이것은 모두 中風後遺症期の 여러 證候를 표현한 것들이다. 끝으로 許仁則과 張文仲을 인용하여 中風의 原因 중 內因說을 論述하였고 개인의 人性에 따라 中風發生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것을 보건대 王燾는 中風門을 구성함에 있어서 中風 발생시부터 急性期, 後遺症期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 생기는 證候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나누어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中風의 분류방법은 《靈樞·熱病》에서는 偏枯, 痲<sup>46)</sup>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證候에 따라 나눈 것이고, 《素門·風論》에서는 中風을 五臟에 귀납시켜 五臟風으로 구분하였다. 《金匱要略·中風歷節病脈證并治》에서는 病邪의 침입 부위에 따라 中經, 中絡, 中腑, 中臟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부위와 疾病의 輕重에 따른 분류법이다. 《千金要方》에서는 《靈樞》의 證候의 분류를 더욱 발전시켜 偏枯, 風非, 風癱, 風痺의 中風四大證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분류법 역시 《內經》과 마찬가지로 症候에 따른 분류로 이에 따른 病證의 輕重, 治療와 豫候에 대한 循次에 대해 기술

44) 全國韓醫科大學心系內科學教室, 東醫心系內科學 I. 書苑堂, 1995: p.507

45) 김선영 의, 前揭書: p.227

4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韓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17, 328

하고 있다47).

《諸病源候論》에서도 中風을 證候와 五臟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外臺秘要》에서는 《諸病源候論》의 분류방법을 따랐는데, 특이한 것은 계절에 따라 中風을 분류하여 脈狀과 處方을 기술한 것으로 이의 임상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증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 2. 原因과 病理機轉

中風의 原因과 病理機轉에 있어, 《內經》에서는 外來風邪가 原因이라고 하였고, 風邪가 人體에 침입하여 中風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巢元方은 《諸病源候論》에서 대체로 《內經》의 原因을 그대로 따랐으며, 病理機轉에 있어서는 血氣俱虛, 血氣偏虛, 血氣虛, 皮肉虛弱, 脾胃氣弱, 胃弱衰損, 人體偏虛, 營氣虛 등 血氣, 脾胃 및 營衛가 虛한 상태에서 外邪가 침입하여 氣血의 運行이 著滯되어 不能潤養하므로써 風病의 여러 證候가 발생된다고 하였다48).

孫思邈도 마찬가지로 《千金要方》에서 《內經》의 原因을 그대로 따랐으나, 病理機轉에 있어서는 風이 人體內로 侵襲되는 과정 중에서 그 당시의 기후환경이나 患者의 體質, 體型, 虛實에 따라 病症이 다르다고 하였다49).

王燾는 《外臺秘要》에서 《諸病源候論》의 原文을 그대로 인용하여 《內經》의 外來風邪說과 血氣俱虛로 外邪侵入하여 氣血運行이 著滯된 결과 風病이 발생한다는 病理機轉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여기에 덧붙여서 許仁則의 中風門을 인용하여 中風의 原因에 대하여 “本氣를 養生하는데 잘못이 있어 人體가 편

협하게 손상받는 바가 있어 발생한다50)” 고 하였으며, 남녀간의 성관계나 飲食, 飲酒 혹은 思慮, 勞役 등을 過多하게 하는 것이 모두 中風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外來風邪가 人體內의 虛를 타고 들어온다는 이전의 醫家들의 內虛邪中의 이론에 비하여, 養生의 잘못 등 外因없이 內因만 가지고도 中風이 발생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51).

한편, 中風의 病理機轉에 있어 張文仲의 說을 인용하여 “風邪는 대체로 같으나 그 風邪가 체내에 들어가서 中風을 일으키는 데에는 개인의 人性에 따라 다르다52)” 라고 하여 中風의 발생은 개인의 人性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성품이나 감정변화가 中風과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지는 않았다.

또한 王燾는 中風의 발생에 季節 영향이 있어서 3-4月和 9-10월에 中風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여 中風과 계절과의 상관성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3. 診斷과 豫候

王燾는 中風의 診斷과 豫候에 있어서 脈을 중요시하였는데, 대부분 《諸病源候論》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독자적인 것은 四時中風方에서 脈으로 예후를 감별한 것이 유일한데, 봄에 脈이 浮短한 자는 重症이고, 大 하면서 長한 자는 輕症이라고 하였다. 한편, 許仁則方의 條文을 인용하여 정신적 안정과 육체적 노동의 휴식이 藥物의 작용을 도와 中風의 豫候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였다.

## 4. 治法

47) 최은정, 정승현, 신길조, 이원철, 唐 千金方に記載된 中風에 관한 考察, 大韓韓醫學會誌, (17)2, 1996: p.130

48) 김선영 외, 前掲書: p.226

49) 최은정 외, 前掲書: p.130

50) 王燾, 前掲書: p.458

51) 洪元植, 前掲書: p.109

52) 王燾, 外臺秘要,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460

《外臺秘要》에서는 中風의 治法에 있어 118종의 藥物內服法과 藥物外用法으로 바르는 약(53)과 붙이는 약(54), 약물세정법(55) 각각 1종, 그리고 非藥物療法으로 2종의 導引法, 5종의 灸法을 기술하였는데, 이는 모두 唐代 以前 여러 醫書에서 참고하였다.

먼저 藥物療法에서는 《外臺秘要》處方の 40.8%가 《千金要方》에서 인용되었다. 이에 《千金要方》과 《外臺秘要》의 處方과 構成 藥物을 비교해보면, 《千金要方》에서는 119개의 方劑와 163종의 藥物이 사용되었고, 藥物의 사용빈도는 麻黃, 防風, 生薑, 桂枝, 芍藥, 杏仁 등의 發汗祛風之劑 위주로 사용되었다.

《外臺秘要》에서는 125개의 處方이 인용되었고, 130종의 藥物이 사용되었으며 사용빈도에 있어서는 甘草 59, 桂心 55, 防風 50, 麻黃 43, 生薑 37, 人參 34, 芍藥 34, 獨活 29, 芍藥 29, 乾薑 28, 當歸 28, 白朮 23회 등 發汗祛風之劑가 다수를 차지하여 《千金要方》과 處方の 내용면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는 없다. 그러나 石膏, 黃芩, 竹瀝 등 清熱藥의 사용이 《千金要方》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건대, 《千金要方》의 中風 熱證에 대한 인식(56)이 唐代 中期 이후에 좀더 확산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竹瀝, 荊瀝, 生葛汁 등의 冷汁을 이용하는 방법이 多用된 것으로 생각된다. 冷汁을 이용하는 방법은 宋代에 이르러 湯液에 冷汁을 함께 넣어 복용하는 방법으로 발전하게 된다(57).

隋唐時代 處方の 또다른 특징은 국제 교류의 증진으로 中國 이외에서 생산되는 藥劑의 수입이 증가되었고 犀角, 羚羊角 등의 사용이 두드러진 점이다. 특히 羚羊角은 清熱解毒,

清肝泄熱, 清肝散瘀, 熄風醒腦, 涼血止血(58)시키는 작용으로 《千金要方》에서는 7례, 《外臺秘要》에서는 10례 處方에서 이용되었는데, 口噤, 半身不隨, 癱瘓, 偏風 등 여러 門에 공통으로 이용되었으며, 《廣濟方》, 《千金要方》, 《延年方》, 《張文仲方》 등 여러 醫家の 處方에 공통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唐代에 羚羊角의 사용이 보편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犀角은 《千金要方》에서는 3례에서 사용되었고 《外臺秘要》에서는 6례에서 사용되었다.

또한 王燾는 非藥物療法으로 灸法과 導引法을 들었는데, 灸法은 모두 5례에서 보이며, 3례는 《千金要方》에서 인용되었고, 2례는 《備急方》에서 인용되었다. 《千金要方》에서 인용된 방법은 偏風에 風池, 肩髃, 曲池, 支溝, 五椎, 陽陵泉, 巨墟, 下廉, 環髎, 陽輔穴에 刺針하는 방법, 卒中風 口眼喎斜에 대롱으로 耳孔을 막고 灸를 하거나 손에 灸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備急方》에서는 卒中風 悶絕欲死와 不能言語時에 각각 足大趾下橫紋과 제 3 혹은 5 椎上에 灸法을 사용하였다.

《外臺秘要》의 특징중 하나는 針法을 사용하지 않은 것인데, 《千金要方》에서는 非藥物療法중에서 灸法과 함께 針法의 기재가 있는데 반해(59), 《外臺秘要》에서는 灸法만 사용하였고 針法을 사용한 기록이 없다. 이는 王燾가 “針은 사람을 능히 죽일 수는 있으나 죽은 사람을 살리지는 못한다(60)”, “《千金翼方》에서는 針法도 아울러 말했지만 여기서 灸法만 말하는 이유는 針法은 王道가 아니기 때문이다(61)” 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당시에 침으로 인한 사고가 많았기 때문이다(62). 한

53) 王燾, 前掲書: p.437  
54) 王燾, 前掲書: p.451  
55) 王燾, 前掲書: p.437  
56) 孫思邈, 前掲書: p.133 “凡患風 人多熱 常宜服荊瀝方”  
57) 이동원, 정승현, 신길조, 이원철, 宋代 局方書에 기재된 中風에 관한 고찰, 대한정보학회지, (2)1, 1996

58) 馮石松, 羚羊角臨床運用之淺見, 四川中醫, (13)2, 1995: p.18  
59) 孫思邈, 前掲書: p.131 “針風池一穴, 肩髃一穴, 曲池一穴, 支溝一穴, 五椎一穴, 陽陵泉一穴, 巨墟下廉一穴, 凡針七穴則差”  
60) 王云凱 외, 前掲書: p.22  
61) 王燾, 前掲書: p.433  
62) 洪元植, 前掲書: p.112

편, 《諸病源候論》에서는 “湯藥과 灸法과 針法과 砭石은 별도로 정해진 方이 있으며 補養과 導引의 방법은 맨 뒤에 별도로 기재하였다”라고 하여 각 條文의 맨 끝에 治法으로 導引法을 기술하였는데, 《外臺秘要》에서는 風身體手足不隨와 偏風門에서만 導引法의 기재가 보인다.

요컨대, 《外臺秘要》 中風門의 가치는 東漢에서 唐에 이르는 시기의 數十家의 醫論과 醫方을 모아 이 시기의 醫家들의 中風觀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 IV. 結論

王燾는 《外臺秘要》의 中風門 기술에 있어서 前代의 醫論과 治法을 그대로 인용하였는데, 醫論은 대부분 《諸病源候論》에서 인용하였고 治法은 대부분 《千金要方》에서 인용하여 자신의 독창적인 주장은 거의 없으나, 中風의 분류방법과 구성에서 이전의 醫家에 비하여 보다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였고, 中風의 原因과 病理機轉, 治療에 있어서 다른 醫家說의 인용에 의해서 자기자신의 醫論을 간접적으로 피력하였다.

1. 中風門의 구성에 있어, 《諸病源候論》 風病諸候 중에서 中風에 해당하는 證候를 기재하였고, 痺證에 관계된 證候는 제외하였으며, 時間의 경과에 따라 卒中期 證候, 中風 初期의 類似 證候, 後遺期 證候의 순서로 기술하였다.
2. 中風의 原因에 대하여 대체로 《內經》의 外來風邪說을 추종하였으나 房事, 飲食, 思慮, 勞役 등으로 인한 本氣의 養生의 잘못도 원인으로 보았고, 病理機轉에서는 中風의 발생에 있어 개인의 人性和 季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3. 中風의 豫候에 대하여 《諸病源候論》의 脈狀을 인용하여 脈을 중시하였고, 아울러 정신적 안정과 육체적 노동의 휴식이 약물의 작용을 도와 中風의 치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4. 中風의 治療에 있어서 藥物療法이 주가 되고 發汗祛風法을 위주로 하였으나, 이전에 비하여 石膏, 黃芩, 竹瀝 등 清熱之劑의 사용이 증가하였으며, 非藥物療法으로는 灸法, 導引法을 사용하였고 針法은 사용하지 않았다.

## 參考文獻

1. 신광호, 한방외용약, 서울, 도서출판 열린 책들, 1994
2. 申眞榮, 中風에 관한 臨床的 考察, 서울,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3. 王燾, 外臺秘要, 서울,大成文化社, 1992
4.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5. 弘字出版社編輯部, 最新弘字玉篇, 서울, 民衆書林, 1984
6. 葉天士, 臨證指南醫案, 臺北, 新文風出版公司, 1980
7. 巢元方, 巢氏諸病源候論, 서울, 大成文化社, 1992
8. 孫思邈, 千金要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4
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韓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1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韓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11. 王叔和, 脈經, 香港, 太平書局, 1961
12. 王云凱 외, 中國名醫名著明方, 河北,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3
13. 任應秋 외,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14.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大成文化社, 1984
15. 錢超塵 主編, 千金翼方詮譯, 北京, 學苑出版社, 1995
16. 陳貴延 외, 實用中西醫結合診斷治療學, 서울, 一中社, 1992: 55-64
17. 김선영, 이동원, 신길조, 이원철, 諸病源候論의 中風에 관한 考察, 東國大學校 韓醫學 研究所 論文集, (5)1, 1996
18. 朴在仁, 최근 우리나라 뇌졸중의 역학적 양상에 대한 연구, 서울,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1994 : p.10
19. 이동원, 정승현, 신길조, 이원철, 宋代 局方書에 기재된 中風에 관한 고찰, 대한정보학회지, (2)1, 1996
20. 이화준 외, 中風證候의 東西醫學的 比較考察, 大韓韓方內科學會誌, 14(1), 서울, 1993
21. 최은정 외, 唐, 千金方에 기재된 中風에 대한 考察, 大韓韓醫學會誌, (17)2, 1996
22. 姜靜嫻 盛增秀, 略論晉唐時期的方劑學, 陝西中醫, (16)10, 1995
23. 馮石松, 羚羊角臨床運用之淺見, 四川中醫, (13)2, 1995
24. 韓平, 晉唐三大方書의按摩成就與啓示, 北京中醫藥大學學報, (18)6, 1995

ABSTRACT

**The Considerations of Stroke in Oidaibiyo(外臺秘要)**

Gyuseon Cho\* · Jungnam Kyun\*\* · Giljo Shin\* · Wonchul Lee\*

Dep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cause, pathological mechanism and treatment of stroke in Oidaibiyo(外臺秘要), written by Wangdo(王燾).

The results were follows :

1. Oidaibiyo(外臺秘要), which is written by Wangdo gives an account of the symptomatic degree of intensity and diachronic procedure in the chapter of stroke.
2. The cause of stroke is quoted mainly from External Wind(外來風邪), and the hyper-sexual intercourse, hyperalimentation, hyper-consciousness, excessive labour and so forth as additional. And personal character and external effect, like the climate conditions are also much affected the outbreak of stroke.
3. With respect to the diagnosis of stroke, pulse means here quoted from its conception in Chungumyobang(千金要方) Jebungwonhuron(諸病源候論), and pulse plays an important role in diagnosis of stroke.
4. The treatment for stroke generally attaches much importance to medicine therapy. The concrete cure, BalhanGeopungbub(發汗祛風法) has been mainly available, and the usage of Cheongyulyak(清熱藥) has been increased, contray to formal.

---

Key ward : Wangdo(王燾), Stroke(中風), Oidaibiyo(外臺秘要)

\* 동국대학교 심계내과학교실

\*\* 동의대학교 심계내과학교실